

# 박민지 총상금, 김주형 압도…국내프로골프는 ‘여인천하’

〈지난해 KLPGA 상금왕〉

〈지난해 KPGA 상금왕〉

장환수의 수(數) 포츠

우먼파워는 어디까지 왔나 〈하〉

스포츠에도 이데올로기가 있다. 스포츠 수학을 한다면서 이념까지 꼬집어내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들을 때처럼 머리가 아파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용은 심플하다.

●상금 규모부터 살펴보자.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서울마라톤은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대회다. 규정에 따라 남녀 순위 상금을 똑같이 책정한다. 8만 달러(약 1억 원)를 받는 남녀 1위 기록은 보통 20분 이상 차이가 난다. 스포트라이트는 남자 우승자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조직위는 기록 보너스로 남녀 차이를 둔다. 이른바 수정 사회주의다. 테니스는 남녀 차이가 전혀 없다. 남자는 5세트, 여자는 3세트로 승부를 가린다. 누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물매를 맞았다. 페미니즘의 완결판이다.

●골프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따른다. 미국프로골프 상금은 남자가 여자보다 몇 배로 많다. 올해 발표된 대회 평균 상금은 1027만 대 252만 달러로 4배차. 남자 대회(47개)가 여자(31개)보다 많다 보니 전체 상금은 4억 8260만 대 8570만 달러로 약 6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지난해 여자 상금왕 고진영은 약 43억 원을 벌여 존 램(약 95억 원)을 추격했다. 이에 비해 국내프로골프는 지난해 대회 평균 상금(9억2000 만 원)과 우승 상금(1억3700만 원)이 거의 같다. 다만 대회가 여자(31개)가 남자(17개)의 2배에 가깝다. 따라서 전체 상금은 284억 대 156억 원으로 여자가 훨씬 많다. 지난해 여자 상금왕 박민지는 15억2100만 원을 벌여 김주형(7억5500만 원)을 압도했다. 국내에선 남자가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선 남자 시니어 대회 인기와 상금 규모가 여자 대회에 비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남자 시니어 대회는 아직 그들만의 리그다.

●순수할 것만 같은 스포츠에서 왜 이런 남녀 차이가 생겼을까. 올림픽정신으로 대표되는 아마추어리즘과 자본주의가 이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차이다. 대체로 유럽 스포츠는 남녀 혼성종목을 한 개의 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



남녀 선수가 경기력으로 맞붙으면 대부분 결과는 뻔하다. 하지만 인기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여자 선수, 여자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진 곳도 많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 박민지(왼쪽), LPGA 투어 상금왕 고진영이 대표적이다.



KLPGA·AP뉴시스

정점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있다. 테니스는 프로가 활성화된 뒤에도 남녀 메이저 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연다. 상금이 같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골프는 영국에서 시작됐어도 여성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PGA와 LPGA로 분화됐다. 농구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은 여자 대회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어서 서로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종목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피겨스케이팅은 기록이 아닌 채점 종목이지만 선수는 자신이 연가할 기술과 난이도를 직접 고르고, 심판은 그에 따른 배점에 가점과 감점을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남녀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김연아는 228.56점을 받았다. 남자 싱글 우승자인 에반 라이사체이 받은 257.67점의 88.7% 수준에 불과하다. 김연아는 남자들과 함께 쳐봤다면 9위다. 하지만 그의 연기는 세계를 매료시켰다. 점수가 높은 8명의 남자 선수는 비교도 안 될 돈방석에 앉았다. 남자가 아무리 운동능력이 뛰어나다고

美 프로골프 남자 상금이 약 6배 많지만 국내선 KLPGA 강세…철저한 시장은

女골퍼들의 성대결 시도 모두 패배 쓴맛 남자골퍼와의 비거리 차이 극복 힘들어

피겨여왕 김연아, 밴쿠버 228.56점 남자선수보다 점수 낮았지만 세계 매료

해도 금남의 벽은 존재한다. 리듬체조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남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혼성종목에선 여자가 남자에게 도전하는 성 대결 시도가 있어왔다. 골프가 대표적이다. 베이브 자하리야스는 1945년 PGA 로스앤젤레스오픈에서 첫 통과를 했다. 아쉬운 것은 3라

운드에서 부진하자 4라운드를 기권하는 바람에 최종 순위를 남기지 못했다. 이후 반세기도 더 지난 2003년이 돼서야 성 대결은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수지 웨일리는 그레이터 하트퍼드오픈 출전권이 걸린 지역예선에서 우승했다. 타이거 우즈만큼 압도적 기량을 선보였던 안니가 쇼켄스탑은 초청선수로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14세이던 ‘천재 소녀’ 미셸 위도 183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장타를 앞세워 캐나다 베이밀스오픈에서 첫 도전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17세이던 2006년 아시아인 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2라운드 합계 5언더파 공동 17위로 컷(이븐파)을 통과했다. 선두와 14타차인 3언더파 공동 35위로 마감하며 7전8기를 이뤘다. 이에 앞서 박세리는 2003년 국내투어 SBS최강전에서 컷 통과 후 공동 10위에 올랐지만 코스가 짧은 데다 PGA 대회가 아니어서 빛이 바랬다. 최근에는 브리트니 린스컴이 2018년 바바솔 챔피언십에서 이글을 잡는 등 선전했지만 2라운드 합계 5오버파(컷 4언더파)로 높은 벽을 실감했다. 결국 정식 PGA 대회에서 여자 선수가 최종 순위에서 경주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여자 선수가 실패하는 이유는 홍일점 출전에 따른 중압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거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자 대회 코스 평균 전장은 6500야드인 반면 남자는 7200야드에 이른다. 그렇다면 거꾸로 남자가 여자 대회에 청일점으로 출전한다면 우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흥미로운 질문을 그냥 내버려두면 수포츠가 아니다. 미국프로골프에서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지난해 남자가 296.2야드, 여자는 255야드 남짓(추산)으로 약 40야드 차이다. 남녀 코스 전장 차이인 700야드를 18홀로 나눈 38.9야드와 비슷하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대회에서 비슷한 거리를 남겨두고 세컨드 샷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가 여자 대회 코스에서 친다면 40야드 앞에서 세컨드 샷을 하는 것이다.

●이대로면 젊은 타이거 우즈는 이번이 없는 한 백발백중 우승이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은 2006년 평균 306.4야드의 티샷을 날린 우즈는 100야드 안쪽 그린적중률(안타깝게도 이런 세분화된 기록은 2001년부터 집계돼 있다)이 무려 92.3%로 압도적인 리그 1위다. 이때 웨지 샷을 핀에 붙이는 평균 거리는 3.88m로 역시 1위다. 이 중 36%를 버디로 마무리했다. 파4 10개 홀에서만 최소 3언더는 보장된다. 파5 홀은 매번 버디 또는 이글을 시도할 것이다. 우즈는 드라이버 샷이 빛나가 러프에서 올리는 그린적중률도 61.2%로 역시 1위다. 티샷 페어웨이 안착률은 60.7%(139위)로 문제가 있지만 여자 대회 코스라면 3번 아이언 스타팅 어 샷으로도 충분하다.

●현 세계랭킹 1위 은 램도 지난해 309야드 장타에 100야드 이내 그린적중률 87.8%, 핀에 평균 5.03m 거리에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자랑했다. 이때 버디 확률은 15%로 파4 10개 홀에서 1.5언더를 예약한다. 페어웨이 안착률은 63.7%로 우즈보다 낮다. 반면 이들에 맞서 여자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지난해 그린적중률 78.8%(2위), 평균 퍼트 29.6개(19위), 페어웨이 안착률 79.7%(13위)로 나무랄 데가 없지만 아무래도 합계는 경쟁이 예상된다. 파3 홀이 어떻게든 맞춰보겠지만 파4와 파5 홀에서 차이가 날 게 분명하다. 결국 남자 세계 톱랭커라면 여자 대회에서 빅 트러블 상황만 피한다면 우승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수포츠의 결론이다.

장환수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zangpabo@donga.com



## 스포츠 종합

### 김민선, 빙속 월드컵 여자 500m銅…시니어 첫 메달

2차 37초587…랭킹 6위로 시즌 마감

여자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의 희망 김민선(23·의정부시청)이 날아올랐다. 시니어무대 첫 메달을 따내며 존재감을 알렸다.

김민선은 13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 티알프빙상장에서 벌어진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이널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7초587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시니어 월드컵 개인 종목에서 첫 입상에 성공했다.

김민선은 첫 100m 구간을 전체 5위 기록인 10초51에 끊었지만, 나머지 400m는 27초07(전체 2위)에 통과했다. 은메달리스트 브리트니 보우(미국·27초12)의 같은 구간 기록보다 빨랐다.

김민선은 전날 이 종목 1차 레이스에선 10초50(전체 4위)의 기록으로 100m 구간을 통과했지만, 곡선주로서 2차례나 중심을 잡지 못하며 출전선수 13명 중 최하위(39초534)에 그쳤다. 100m 구간 기록이 좋았기에 더욱 아쉬웠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이튿날 곧장 세계 수준의 기량을 뽐냈다. 스피드스케이팅 최강국 네덜란드의 홈팬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중압감을 이겨낸 것 또한 돋보인다.

특히 2022베이징동계올림픽과 이번 대회 이 종목 1·2차 레이스를 모두 제패한 에린 잭슨



김민선

(미국)과 보우를 비롯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 종목 챔피언 고다이라 나옴(일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 대회에서 메달을 딴 만큼 한층 값진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제갑성렬 의정부시청 감독 또한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감동적인 레이스였다. 김민선이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는 데 이번 동메달이 엄청난 발판이 될 것이다. 관중들이 가득 찬 무대에서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개인 첫 시니어무대 메달로 월드컵 포인트 96점을 보낸 김민선은 여자 500m 세계랭킹 6위(총점 388점)로 2021~2022시즌을 마쳤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이 종목 톱10 진입(7위)에 이어 시니어무대 첫 메달까지 거머쥔 이번 시즌은 그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듯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악천후에 진통 앓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라히리 ‘깜짝 1위’ 질주

모리카와·쇼플리·캡카 등 컷탈락 이변

나흘 동안 채 3라운드도 마치지 못했다. 폭우에 강풍, 저온 등 악천후 탓에 프로골프 사상 최대 상금이 걸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 상금 2000만 달러·247억2000만 원)의 ‘악전고투’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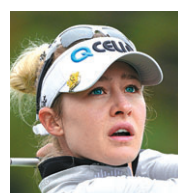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에서 열린 나흘째 경기는 컷을 통과한 71명 가운데 단 한 명도 18홀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끝났다. 가장 많은 홀을 친 선수가 16번 홀까지 소화하는데 그쳤다. 3라운드 잔여 경기와 최종 4라운드 현지 날씨로 월요일인 15일 한꺼번에 열릴 예정이다.

날씨 탓에 선수들도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인도의 아니르반 라히리가 6번 홀에서 페어웨이를 향해 샷을 날리고 있다. 플로리다(미국) | AP 뉴시스

아니르반 라히리(인도)가 깜짝 1위에 올랐다. 3라운드 11번 홀까지 5타를 줄인 라히리는 중간 합계 9언더파로 리더보드 최상단을 차지했다. 나란히 9번 홀까지 끝낸 톰 호기, 해럴드 바너3세(이상 미국)가 8언더파로 공동 2위에



빌리 코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의 맞수로 꼽히는 코다는 최근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열린 LPGA

털어냈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랐다. 디펜딩 챔피언인 저스틴 토마스(미국)는 11번 홀까지 1타를 줄여 4언더파 공동 18위에, 12개 홀을 마친 세계랭킹 1위 은 램(스페인)은 2언더파 공동 38위에 위치했다.

한국 선수는 두 명이 컷을 통과해 마지막 날 반전을 노린다. 3라운드 11개 홀을 돈 임성재(25)는 1언더파로 공동 45위에, 15개 홀을 소화한 이경훈(31)은 1오버파 공동 57위에 랭크됐다.

대회 초반 날씨가 큰 변수가 되면서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컷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변도 일어났다. 세계랭킹 2위 콜린 모리카와, 7위 켄디 쇼플리를 비롯해 브룩스 캡카,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 등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2017년 이 대회 챔피언 김시우(27)는 컷 통과 기준(2오버파)을 넘어서었지만 3라운드에 앞서 기권을 선언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A 투어 두 대회에는 지난해 말부터 누적된 피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휴식을 취하며 광고 촬영을 하다 혈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혈전증 판정을 받으면서 4월 1일 개막하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세브렌 챔피언십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김도현 기자

편진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